

RE- INNOVATION

Competing with CSR Edge!

SNU**CSR**NETWORK

표 1

SNU CSR NETWORK in the News

대학가에 '사회적 경영' 바람

이경숙 기자, 신영범 인턴기자 | 04/09 17:45 | 조회 2421
 이 기사의 태그: [사회공헌](#) [포스콜](#) [사이프](#) [동아리](#) [태그란?](#)

대학가에 '사회적 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동아리, 사회적 기업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결합시키고 있다.



전 세계 대학생경제동아리 '사이프(SIFE, Students In Free Enterprise)'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주목한다. 국제대회도 연다. 도전과제는 기업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수익모델을 만들어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내 대회는 2005년부터 열렸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국내 대회 1등을 수상한 연세사이프는 새터민, 미혼모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경제 관념이 약한 새터민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경제를 교육한다. 또, 미혼모와 이주여성들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다.

사회공헌 가장 잘하는 기업 1위 '포스코'

대학생 10명 중 7명,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취업선택 기업에 영향 미쳐

최근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취업하고 싶은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서울대 CRS연구 남녀 대학생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조사결과, 49.2%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취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도 20.7%로 10명 중 2명 수 를 미치지 않는 편이다' 22.0%,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8.0%로 소수에 불과했다

대학생들, '기업 사회적 책임' 논한다

13일부터 서울대서 국제회의

【한겨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여러나라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사 (CSR)를 주제로 여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세계 100여개 나라 5만여명의 회원을 둔 국제경상학회(AISEC) 서울대학교 주 부터 17일까지 4박5일간 서울대에서 '아시아와 CSR'를 주제로 한 '이노브아사 2008 서울'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주관은 서울대학교 시메스아르 (S CSR Network)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행, 아와 서울대 시메스아르 연구동아리가 함께 진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고 상관관계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비롯해, 아이비엠(IBM) 스타벅스 현대지 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머니투데이 2007.04.09

〈대학가에 '사회적 경영' 바람〉

대학가에서 '사회적 경영' 바람이 불고 있으며 SNU CSR NETWORK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 자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는 학생 조 직으로 소개됨

연합뉴스 2008.08.12

〈사회공헌 가장 잘하는 기업 1위 '포스코'〉

잡코리아와 SNU CSR NETWORK가 공동으로 실시 한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의 응답자 가 기업의 CSR 활동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한겨레신문 2008.07.10

〈 대학생들, '기업 사회적 책임' 논한다〉

서울대AIESEC과 SNU CSR NETWORK의 공동 주 최로 아시아 대학생들이 CSR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연합뉴스 2008.04.07

〈틈새마케팅이 뜬다. 소비자들 공익마케팅에 관심 높아〉

라임글로벌 개최 공익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SNU CSR NETWORK의 '항공마일리지 기부 마케팅 프로그램'이 입상하였음

한겨레신문(기획) 2007.05.14

〈'젊은 고민'으로 사회공헌 새 패러다임 만들 것〉

SNU CSR NETWORK, 연세대SIFE, 서강대 블랙박 스 대학생 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좌담회를 가짐

한국경제 2008.08.13

〈포스코, 봉사 동아리만 400개. 해외까지 사랑 손길〉

포스코의 사회공헌 기사에서 SNU CSR NETWORK 의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사회공헌 1위: 포스코)가 인용 됨

틈새마케팅이 뜬다. 소비자들 공익마케팅에 관심 높아

공익마케팅이 기업 마케팅의 새로운 상품전략으로 부상 소비자사 생각하는 공익마케팅 새 줄 베풀려는 제품은 '항공' '전사제품' '음식료' 순 공익마케팅 실행에 있어 타겟층이 공감할만한 공익활동 선정과 전략이 필요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많은 소비자들 "이왕이면..."이라는 생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이런 생각을 반영이라도 하듯 제품과 공익활동을 연계한 공익마케팅 시장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상성전자는 유선, 중동 지역 등 세계 각국에서 '상성 러닝 페스티벌' 이벤트를 마련해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전자제품의 수리금 중 일부를 공익을 위해 기부하고 상성전자 보편드를 천지에 안라고 있다. 또한은발은 열미 전 발발한 승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요괴제 시장 정기예금' 상품의 판매를 시작하 각 가입금액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재 보호기금에 기부하고 있다.

사회공헌 및 공익마케팅 전문 컨설팅 회사 라임글로벌(대표 최현준, www.limeglobal.com)은 192명의 비자를 대상으로 공익마케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공익 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품군은 '항공 (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가 넘는 높은 응답률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제품(32명), 음식료(31명), 통신(29명)은 각각 한 표, 두 표 차이의 비스비 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1위를 기록한 '항공'은 전 연령, 직업, 성별에서 골고루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지난 1월에 개 지선사업 '남아 사회적 가치성을 중요성 발리크 실현하도라

연합뉴스 2008.08.12



포스코 .. 봉사 동아리만 400개... 해외까지 사랑 손길



INNOV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지속가능경영 개념에 대해 강연 중인 조동성 교수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강연 중인 KoSIF 양춘승 이사님



IT 업체의 CSR경영 사례 발표

SNU CSR NETWORK는 서울대AIESEC과 함께 CSR을 주제로 국제 대학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도움으로 국내외의 대학생들에게 CSR을 배우고 한국의 상황을 소개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SNU CSR NETWORK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외부 협력과 기획으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대회명: INNOVASIA 2008 Global Youth Conference
- 일시: 2008.07.14
- 장소: 서울대학교 61동
- 참가대상: 국내 대학생 / 아시아 지역 대학생 / CSR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등
- 주최: 서울대AIESEC
- 주관: SNUCSRNETWORK / KoSIF / 서울대 AIESEC
- 스폰서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HP



뜨거웠던 이번 여름, CS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서울대에 모여 서로를 알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 나는 우리 CSR Network가 기획,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의 CSR 실천 수준과 대학생의 취업 선호도 관계에 대한 설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당장 졸업후 우리가 일하게 될 직장을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지만 같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며 또한 발표 이후 토론 세션에도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나를 놀라고 기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점은 참가학생들의 대부분이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대학교 1,2학년으로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한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내며 그들의 미래 역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학생들과 이야기 하고 만날 수 있어 바람직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들이 모두 앞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하고 좋은 기업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내는 행복한 상상을 이 짧은 소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본다.

SNUCSRNETWORK 박혜린 (3기, 영어영문과)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HP 등의 후원 현수막



ISO26000 SR에 대해 패널토의 중 (오른쪽, 심창현)



스타벅스 코리아의 케이터링 후원

UN Global Conference: Carbon Audit



행사장 안에서의 단체사진



대회 포토월 앞에서의 단체사진



갈라 디너 테이블에서

SNU CSR NETWORK는 UN Global Compact, UNEP/FI, UN PRI에서 개최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경영'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린 행사를 만들기 위한 '카본 오딧(탄소감사)'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UN 측에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SNU CSR NETWORK는 탄소감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물론, 세계적인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가질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다.

- 대회명: Changing Landscapes: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in Asia
- 일사: 2008.06.17~18
-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 참가대상: 국내외 금융기구 / 기관투자자 / 한국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장 / 경제, 산업, 학계 인사 등
- 주최: UNGC / UNEPfi / UN PRI
- 스폰서
우리은행 SK
MBC 조선일보 에코프론티어
미츠비스UFJ금융 관광공사 등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자체는 비록 외국인 안내나 위치 안내 같은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위기의식과 동시에 희망이라는 양면을 보았다. 우선 국제대회인 만큼 다양한 나라에서의 참여가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현재의 환경 위기가 단순 한 국가의 국지적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는 장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또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CSR이 단순 일회적 기부나 환경 보존이라는 기존의 식상한 분야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현실 경제의 득실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음을 어렵듯이 느꼈다. 이들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CSR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였다.

SNUCSRNETWORK 김민주 (3기, 법학과)



탄소감사 참여 피켓 캠페인



탄소감사를 위한 개인 배출량 정보 수집함



고생한 주희와 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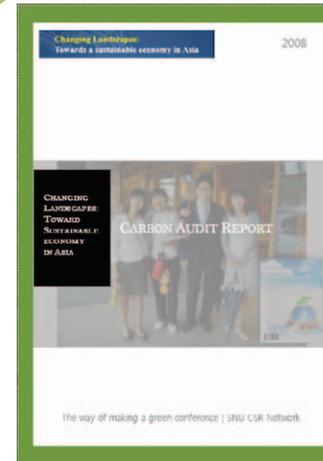
Main Speakers of UN Global Conference



Carbon Audit (탄소감사)

Carbon Audit(탄소감사)이란 개인, 가정, 그리고 기업 등의 조직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냉난방, 교통수단 이용, 조명, 전력 사용은 물론이고, 물 사용과 폐기물 처리 등도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측정 이후에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Carbon Strategy(탄소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Carbon Strategy란 조직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액션 플랜을 말한다. 최근에는 감축을 넘어서 Carbon Neutral(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발생한 탄소의 양을 측정한 후에, 감축 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된 탄소를 배출권 구매,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으로 상쇄시키면 탄소중립의 달성이 가능하다.

〈탄소감사보고서〉



SNU CSR NETWORK는 지난 6월 17-18일에 열린 국제회의 〈Changing Landscapes: Toward sustainable economy in Asia〉를 대상으로 Carbon Audit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호텔로부터 회의장소 이용 정보를 확보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재단의 탄소계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 배출량은 약 580t, 참석자 1인당 배출량은 0.77t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상세한 측정 과정과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국제회의 Carbon Audit 가이드라인을 실어 앞으로 탄소감사 실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탄소감사보고서 바로가기 -> http://www.changinglandscapes.org/01_about/05_green.htm

Wanna Be a Business & Social A.I.D.er?

Analyst | Innovator | Designer

CSR | investing

기업과 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작성해본다.



CSR | editing

CSR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좋은 자료와 지식 성과물들을 모아 대학생이 직접 만드는 비즈니스리뷰저널을 발간한다. <SUSTAINABILITY Review>

CSR | competing

CSR과 관련된 비즈니스 케이스 해결을 주제로 대학생 컴피티션을 개최하고 역량을 대결한다.

SNUCSRNETWORK 2008-2 신입회원 모집

- 모집 기간: 2008년 9월 1일(월) ~ 9월 24일(수) 자정
- 지원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접수 ➔ www.snucsr.com
- 탄소발자국 행사 & 동아리 홍보부스: 9월 22일(월), 학생회관 앞
- 인터뷰: 별도의 인터뷰 없음
- 최종통보: 9월 25일(목) (개별 전화 연락)
- 환영 MT: 9월 26일(금) ~ 27일(토)
- 신입 기초 교육: 9월 29일(월) ~ 10월 10일(금) ➔ 2주간 6회
- 문의 사항: snucsr@gmail.com / 010-2051-1782 (심창현)

자세한 사항은 WWW.SNUCSR.COM에서 확인하세요.

(*09.09.Tue 정식 오픈)



A World of Opportunity-
It's Happening at SNUCSRNETWORK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 SK에너지 주식회사

고객의 사랑과 신뢰로 성장해 온 SK에너지는 보다 강하고 건전한 기업,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으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CSR) 활동 강화

SK에너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금년 4월 29일 이사회 안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SK에너지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SK에너지의 윤리경영 기본방향은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SK에너지는 구성원들이 모든 경영활동에서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추진

SK에너지는 사회공헌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업이라는 활동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SK에너지는 '자선'과 '참여'가 병행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일회성이거나 단발적 행사 및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근본적 사회문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략적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SK에너지는 근본적 사회문제의 하나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부터 정부 및 NGO와 더불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 에너지 회사라는 기업 특성에 걸맞은 따뜻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등을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앞으로도 투명경영 및 글로벌 경영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고, 행복 나눔을 더욱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복극대화에 앞장 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수출품이 석유제품이 될 것이라고]

석유제품이 올해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8.1 지경부 보도자료-2008년 7월 수출입 동향 1~7월 누적기준)

SK에너지는 앞선 생각과 기술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원유를 가공,
수출하여 고부가 가치의 국가경제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 167개국 31개 유전 개발은 물론, 세계 고급 윤활기유 시장 1위 및
중국 아스팔트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선 생각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기름으로 돈 버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발표 대한민국 7대 수출품 순위]

① 석유제품 233.57 ② 일반기계 228.89 ③ 선박박류 223.82 ④ 자동차 217.25
⑤ 무선통신기기 209.04 ⑥ 반도체 207.64 ⑦ 석유화학 20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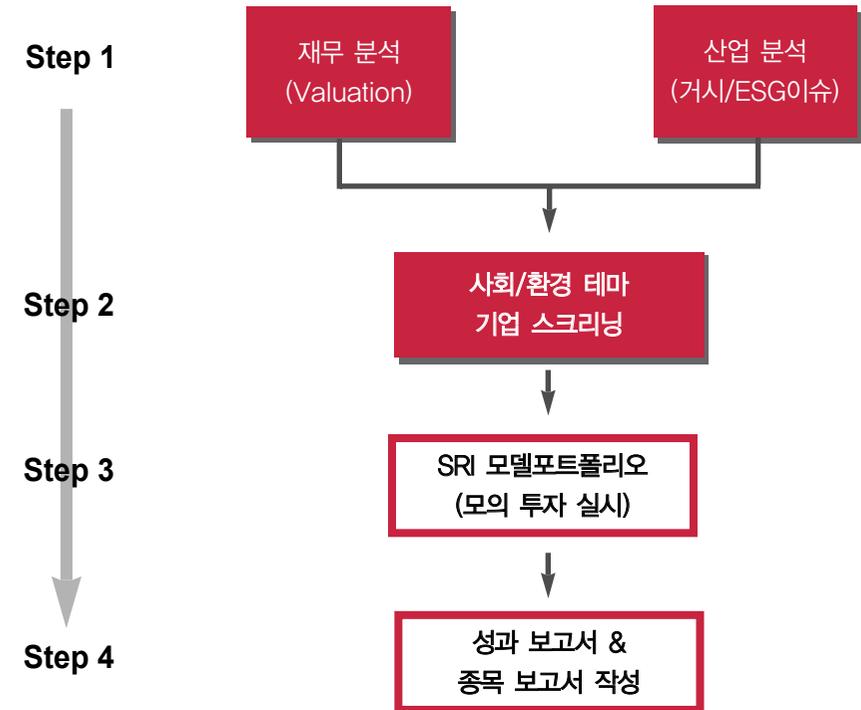
(단위: 억달러 / 2008년 1~7월 누적기준)



CSR | investing

SNU CSR NETWORK는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고 CSR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재무적 가치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기업의 자산과 사회/환경적인 기회 및 위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적인 형태의 투자를 직접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투자 지식은 물론 기업 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Maximize Your Investment Returns with
Contributing to Our Society and Environment.*



Global Investors Are Doing This!



〈영국 Hederson의 SR펀드인 "Global Care Managed Fund"의 운용성과보고서〉



〈마켓인덱스로 유명한 다우존스의 지속가능성 지수의 성과 차트〉

Business School Students Are Doing This!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이 SRI를 직접 운용해 화제다.

비즈니스위크, 2007.11.20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이 직접 SRI펀드를 운용하면서 실제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버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사회책임투자 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비즈니스와 금융에 대한 무한한 학습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UC버클리의 HAAS 비즈니스 스쿨과 콜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학생들은 교수진들과 함께 직접 종목 분석과 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익은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돕는 데에 시드 머니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Haa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로 명명된 이 펀드는 동문 선배의 지원금 25만 달러로 시작하여 현재는 1.3백만 달러로까지 성장했다. 무기, 담배, 알콜 산업의 기업을 배제하고 CSR 활동을 잘 수행하는 기업들을 충실히 편입한 이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매니저 학생이 언급하기도 했다.

BusinessWeek

THE MBA LIFE November 20, 2007, 10:34PM EST

Student Funds Get Responsible

A new breed of student-run investment funds looks for social returns along with dividends

by Alison Damast

Student-run investment funds at business schools typically have had one goal: to teach students how to make money. Now a new generation of business-school students is giving that old-fashioned model a face-lift, aligning their investments with socially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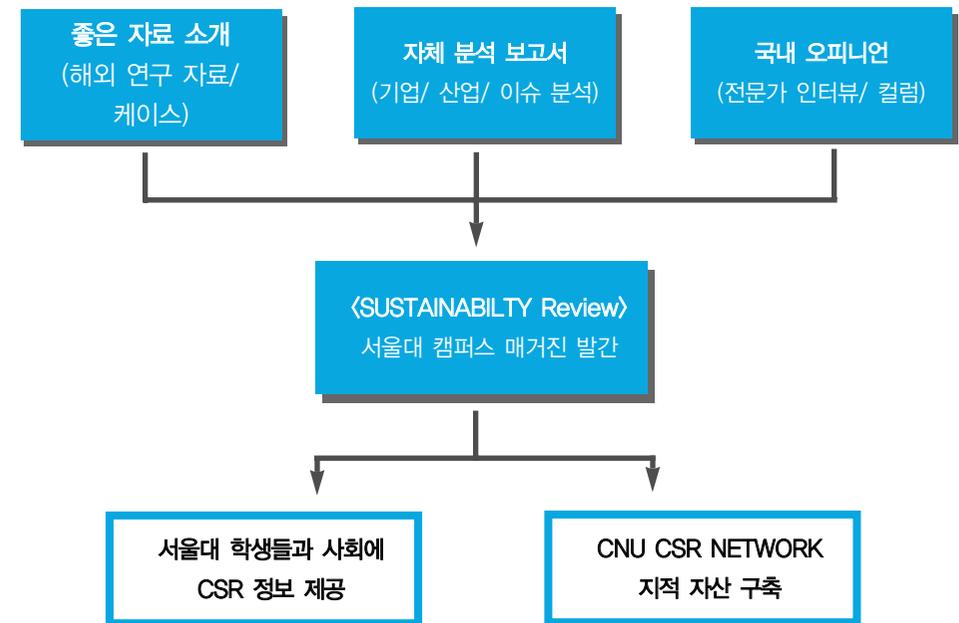
It's a movement that's quickly gaining steam. Students and faculty at [Columbia Business School](#)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Haas School of Business](#) launched funds this fall directed solely toward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The funds are an extension of a flurry of new electives,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student clubs, and internships focused on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BusinessWeek.com).

〈UC버클리 비즈니스 스쿨과 콜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학생들이 직접 운용하는 SRI〉

CSR | editing

SNU CSR NETWORK는 국내외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식, CSR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분석 성과물들을 직접 리서치하고 이를 지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캠퍼스 매거진을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리뷰 저널로 개편하여, 다음 학기부터는 <SUSTAINABILITY Review>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대 학우들과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dvance the Intellectual Capital of CSR and Upgrade the Public Awareness on C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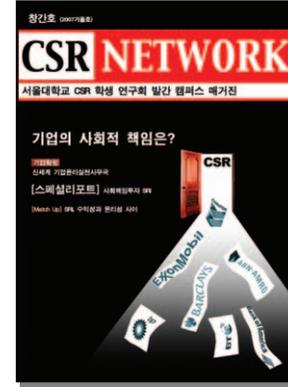


Contents of <SUSTAINABILITY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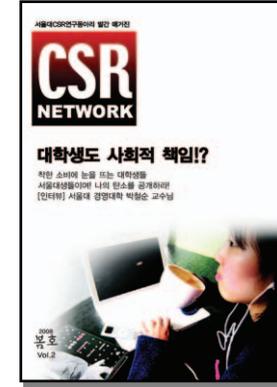
기존의 <CSR NETWORK>은 2008년도 12월 겨울호부터는 <SUSTAINABILITY Review>로 개편됩니다. CSR 전문 비즈니스 지식 저널로서 서울대 학우들과 사회에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저널은 앞으로도 꾸준히 매년 4회 학기초, 학기말에 발간되며, 여러분께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 광고를 통해 제작이 유지됩니다. (잡지는 단대, 식당, 학관, 중도 등 주요 위치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웹사이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Our Research	해외 기업 사례 소개	해외 CSR 기업 사례 소개
	산업 전망 및 이슈 소개	산업 관련 사회 환경 지배구조 이슈를 소개하고 전망
	사회 환경 지배구조 이슈 소개	이슈 한가지를 해설하고 그 이슈의 좋은 국내 사례를 발굴
	투자 종목 보고서 성과 보고서	자체 운용 중인 SRI의 종목 보고서와 성과 보고서 게재
Sustainability Reference	Reading CSR	해외 연구 논문이나 분석 보고서를 리뷰하여 소개
	Reading CSR	해외의 CSR 및 SRI 관련 비즈니스 소개 (금융, 컨설팅, 비영리 등)
	SNU CSR NETWORK	동아리 자체 활동 소개
Opinion	칼럼	외부 전문가 칼럼/ 내부 회원 칼럼
	인터뷰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직접 찾아 인터뷰
	MYTH	CSR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 잡는 글

Issues of Past <CSR NETWORK>



Vol.01 / 창간호(2007.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발간된 캠퍼스 매거진. 창간호로 CSR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 소개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Vol.02 / 봄호(2007.03)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의 책임 실천을 다뤘다. 스타벅스와의 공동 길거리 조사를 통해 윤리적 개념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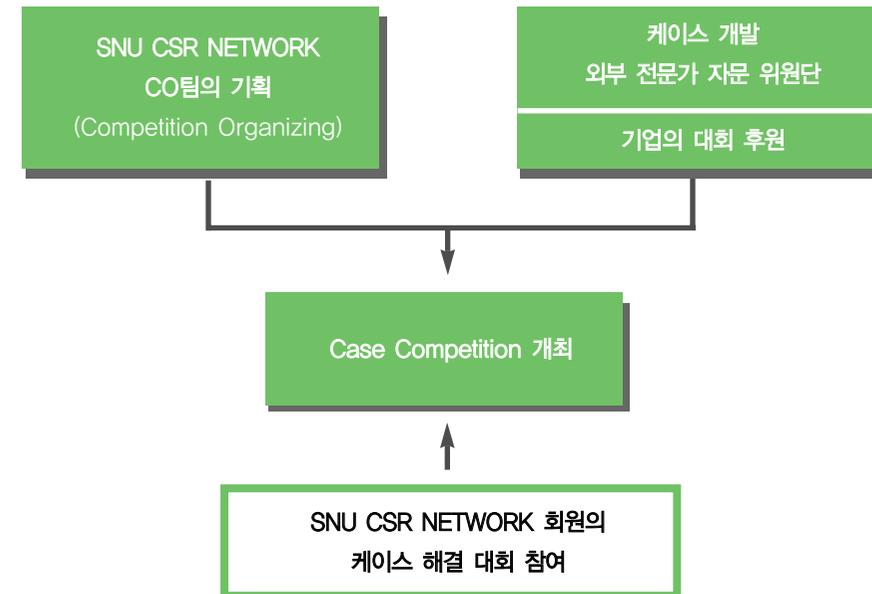
Vol.03 / 여름호(2007.06)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과 비영리 기관, 사회적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특히 캠퍼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의 인터뷰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한국의 HBR과 Social Innovation Review가 된다.



CSR | competing

SNU CSR NETWORK는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공부를 통해 CSR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히 CSR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은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케이스컴피티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량을 키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Arm Yourself with the Best Business Cases and
Burst Your Creativeness and Passion.*

*Case Competition은 2008년 말 최초 개최를 목표로 현재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Why Business Case?

경영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해당 기업과 관련 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 내며 이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원하는 정보를 적절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획득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획득한 정보를 적절한 틀과 구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과 혁신을 가능케 하는 창의성이다. 케이스 스터디는 직접 경영 현장에서 뛰어들기 전 대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보는 '모의고사'와 같다. 대학생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실제 경영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고민들을 미리 해봄으로써 그 자질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다.

Who Develop the Cases?



Examples of University Students Competition



〈SIFE World Cup〉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다루는 사이프 국제 대회



〈한국소셜벤처대회〉 사회적 기업 사업 아이디어를 다루는 대회

The World is Cha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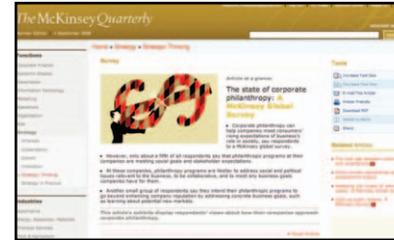
최근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심상치 않다. 사회, 환경, 기업지배구조와 무형적이고 비재무적인 이슈들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 나서고 있다



빌게이츠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위기들을 기업과 시장의 창의적 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이상 기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업은 이제까지 외부화해왔던 사회적 불평등, 환경파괴, 부정부패, 인권 유린 등의 행위들을 중단하고, 지구와 사회,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영 행위를 하게되고 그 행위의 결과들은 전세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더이상 먼미래가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구의 지속가능한 생존 문제를 기업은 더이상 좌시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존재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배구조, 인권, 공정한 운영, 노동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중요한 이슈로 본 표준은 구성되어, 2010년에 발효가 될 예정이다. 또한 UN은 글로벌컴팩(UNGC)과 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기업이 인권과 환경, 사회와 노동의 권리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도 이 이니셔티브들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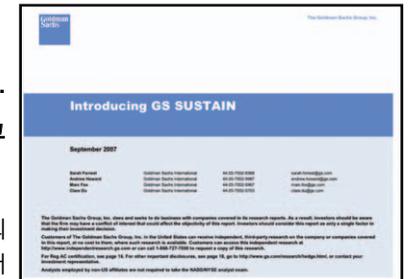
CSR에 대한 연구와 조사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영학 구루들이 최근 CSR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경영전략 마이클 E. 포터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는 전략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CSR 경영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 프레임워크를 선보였다. 또한 마케팅학의 구루인 필립 코틀러는

CSR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기업의 공익적이고 윤리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 성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CSR을 특집으로 기획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세계의 CSR과 기후변화에 대한 동향과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자본 시장도 심상치 않다. CSR 기업들을 골라담아 장기적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최근 사회책임투자를 메인스트림 투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뉴욕교원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세계적 연기금들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하며 전세계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연금도 일부 주식을 사회책임투자 형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엔의 글로벌컴팩 정상회의에서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 Valuation 성과와 사회/환경/지배구조 수준, 미래 산업 전망 테마를 적절히 고려하면 우호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움직임은 이미 지속가능성과 CSR로 향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골드만삭스의
〈GS SUSTAIN〉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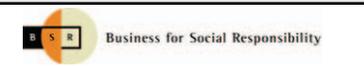
Blue Ocean! CSR & SRI Biz

CSR,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최근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나 컨설팅 회사, 기업 관련 인증 및 평가 기관들이 앞다투어 CSR을 중요한 사업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CSR은 바로 광대한 블루오션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클 포터의 전략, 비영리까지 넘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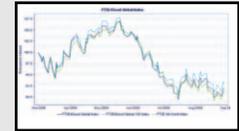
FSG는 마이클포터가 창립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박애정신의 실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FSG에서는 이를 위해 조언을 제시하고(Advice),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Idea),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제안(Action)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FSG의 주요한 5가지 가치는 Commitments to Impact, Trust and Collaboration, Authentic Engagement, Innovative Problem Solving, Vitality in Our Work이다. FSG는 기업과 지역의 재단, 비정부기구, 정부등의 다양한 기관등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Credit Suisse, Citi, Microsoft, GE, The Philadelphia Foundation 등이 있다. 이밖에도 올해 5월에는 스탠포드대학교의 Social Innovation Review와 공동으로 <Good Measures: New Approaches to Evaluation Conference>를 후원하기도 했다.



CSR에 대해 묻고 싶다면, BSR로 가라!

BSR은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사업조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BSR은 리서치 업무, 컨설팅 업무, 그리고 CSR 관련 회의 개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BSR은 Leadership, Integrity 그리고 Respect의 가치를 추구한다. BSR의 주요 파트너로는 베이징대 지속가능개발 기구, U.C. Berkeley Haas 경영대학원,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Global Compact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BSR은 록펠러 재단, UN Development Program(UNDP) 등의 기관과도 공동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KOSPI만 보니? CSR도 지수가 있다?



FTSE4Good은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책임투자 Index다. FTSE4Good는 런던증권거래소와 파이낸셜타임즈의 합병회사인 FTSE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영국의 윤리투자 조사기관인 EIRIS(Ethic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가 투자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FTSE4Good Global Index/FTSE4Good Tradable Index/FTSE4Good Europe Index/FTSE4Good UK Index/FTSE4Good US Index/FTSE4Good Japan Index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FTSE4Good은 미국의 DJSI(다우존스지속가능지수)와 함께 세계적인 SRI 투자지표로 가능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끈다. 지속가능경영원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아울러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합경제단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조사/연구, 회의/교육 정보제공, 국제협력, 정보화지원사업, 정부위탁사업수행, 인력개발, 국가기술자격검증 등을 CSR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원에서는 구현하고 있다. 국내 그 어떤 리서치 기관보다 막강한 자료와 정보력으로 국내 CSR과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에도 사회책임투자의 씨앗을.

SUSTINVEST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관점에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투자 자문회사이다. 주요 투자 원칙은 장기주의(Long-termism), 환경적/사회적/지배구조의 고려(ESG: Environment/Society/Governance), 주주로서의 옹호 행위이고, 5대 경영철학은 Good Vision, Reliable Partner, Ethical Company, Active Player, Tomorrow로 삼고 있다. 실제로 SUSTINVEST는 작년 12월 출시된 한국투신운용의 '한국더좋은지배구조주식형펀드'에 사전 기업평가 및 모니터링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SUSTINVEST의 CEO 인 류영재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녹색CEO 16인에 선정된 바 있다.

Be a Knowledgeable CSR Expert.

해외에는 CSR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 작업이 활발하다. 본 글에서는 그 대표적인 작업으로 맥킨지의 조사 자료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마이클 E.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 교수가 공동 작업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마이클 포터의 논문은 'Porter's Turning Point'라고 불리울 만큼 그 파급력이 엄청났으며, 비즈니스 저널을 통해 꾸준히 기후변화 이슈와 기업의 사회공헌, 책임 이슈를 분석하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Assessing the impact of societal issues, McKinsey Quart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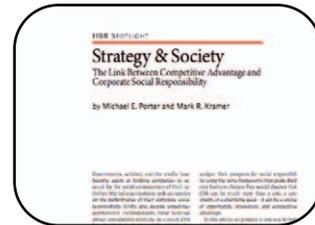
 이 보고서는 2007년 9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설문은 과거 2005년의 질문을 새롭게 던짐으로써 그간의 사회적인 경영 환경 변화와 기업의 전략적 관심, 경영 방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기사는 우선 환경 이슈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한다. 2005년 경영인들의 최대 사회-정치적 이슈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였던 반면에 2007년 설문에서는 과거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던 환경과 기후 변화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이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관련 정치 경제적 담론의 양적, 질적인 증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심은 설문문의 다른 질문들에 대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 즉 대중들은 이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들의 관심 스펙트럼에서 다른 이슈들 (일지러의 해외유출, 개인 정보 문제,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함께 환경 문제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5년의 설문과 비교하면 주주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환경 이슈라고 대답한 경영인들의 비율은 20% 증가하였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꼽을 때,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과 중국이 환경과 기후변화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본 반면, 미국은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 보험과 고용 문제를, 인도는 개인과 정보 보호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기업과 대중들이 환경 등의 여러 사회적인 이슈를 기업 경영환경에 있어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이슈들을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겠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들을 기회로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비율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나, (18%에서 25%) 아직도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설문미 지적해 낸 주요 사회적 이슈들이 기업 경영과 그 환경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Strategy & Society,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HBR)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영인들과 일반 대중들은 CSR 관련 이슈들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또한 그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해결 또는 예방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임시적인 방편을 쓰고 있으며 일반 대중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비용의 낭비이자 생산성의 감소 요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CSR의 실천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기만 하는 요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이자 전략경영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는 그가 쓴 Strategy & Society라는 Review article에서 단호하게 NO라고 대답한다. 그는 글의 서두에서 CSR 실천이 기업들의 중요한 의무로 자리잡아가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CSR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실패의 첫째 요인은 사회와 기업의 상호 의존성을 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적인 존재라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사회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고 사회는 기업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 두 존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희생을 요구하는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CSR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각 기업과 일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가치 사슬과 다른 operation을 가진 기업은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어있으나 CSR에 있어서 만큼은 이 차이가 무시되고 오직 일반적인 접근만이 시도되어 결국은 기업의 CSR 실천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견해이다. 포터에 따르면 과거 기업의 CSR 실천 이유는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도덕적 의무 (moral obligation),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영업의 지속을 위한 필요성 (license to operate), 그리고 명성 (reputation)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과 사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네 개중 일부의 이유에서만 동기부여를 얻는 기업들은 결국 경영 프로세스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된 CSR 실천이 아닌, 일관성 없고 따라서 효과 없는 활동을 하는데 멈추고 만다. 그렇다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CSR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포터는 전략적 CSR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포터는 구체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접점을 찾아 이 둘의 조화를 추구하는 inside-out과 outside-in 모델을 제시한다. Inside-out이란 먼저 기업의 가치 사슬이 사회의 이해 관계자 stakeholder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프레임 워크이다. Outside-in 모델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사회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방법의 조화를 통해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CSR의 실천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전략적인 기회로 적극 활용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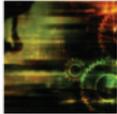
Issue Briefs & Industries of Future, by Henderson

미래에는 이런 산업들에 투자하고, 자라나는 인재들도 이런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한다. 세계는 지금 바로 이런 산업들에서 누가 그 리더십을 선점하느냐로 경쟁 중이다. 학계와 연구 기관들은 이런 산업들에 대한 지식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에 바쁘다. 이런 산업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



청정 에너지 산업

지구온난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재생 가능하며, 수소 중심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



효율을 높이는 기술 산업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며,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과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



환경 상품과 서비스 산업

자연 환경의 질을 높이며, 오염과 폐기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건강 산업

인간 수명을 연장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지식 산업

삶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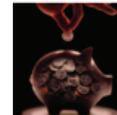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안전 산업

직장이나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사고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품을 개발하는 산업



사회적 자산/자본을 높이는 산업

사회적 이익을 높이고, 주택이나 전기 사용을 원활하게 해주며, 더 폭넓고 좋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산업



지속가능한 운송

덜 오염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운송하는 산업과 더 깨끗한 연료와 기술을 이용하는 운송 산업



수자원 관리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수자원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산업

MEMO

KB 

사람들에겐
1500미터의

물방울,

나에겐

1500리터의

땀방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이 만듭니다 KB 국민은행



태양광에너지로 더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를...

LG는 태안지역에 국내최대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청정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고객의 더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를 위해 LG의 태양광에너지가 함께 하겠습니다.

LG는 사랑입니다

